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과학의 달에 과학 꿈나무를 가꾸자

의 달이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희망, 과학기술인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과학의 달 표어 현수막이 학교마다 교문에 걸려 있다. 과학의 달 표어 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만들어 가 공무역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진 과학기술이 없이는 살길이 막막하다. 60년대는 4월을 식목의 달로 정해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4월을 과학의 달로 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꿈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해진 배경은 정부에서 국민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두게 하고 과학 발전과 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 1967년 4월 21일 설립된 전 과학기술부 1주년을 맞아 1968년 4월 21일부터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1973년 3월 30일 제정 공표한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4월 21일이 과학의 날로 확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부터 과학기술의 지향점과 개발 전략을 설정하고 과학기술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해 영국 독일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술정보센터(KORSTIC), 한국과학기술원(KASS)을 비롯한 한국과

학기술재단, 한국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수많은 기관이 과학기술업무를 분담하는 등 과학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우리는 평소에 과학적인 생활 태도로 불편한 점을 고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과학의 날의 의의가 있다.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모든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관부처는 전 과학기술부이지만 행사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번 과학의 날 과학의 날 행사로 각 학교에서는 발명품전시회, 글짓기, 모형항공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학교에서 선발된 과학 꿈나무 학생을 선발해 표창과 시상 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해마다 선발돼 표창하는 과학 꿈나무 학생들의 후속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학생들이 소질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발된 학생들은 과학에 대해 꿈과 희망을 품고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후속 지도가 있다면, 이는 심은 나무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손질하고 가꾸는 것처럼 과학 꿈나무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각개 분야로 진출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전국 과학전람회, 전국 발명품전시회에서 우수한 작품이 발표되고 있고 세계 기능 올림픽

에서도 한국 대표가 연속 최고상을 받는 것은 우리 민족의 창의력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해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으로 과학 꿈나무들을 찾아 가꾸는 정성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높아져 무역에서 세계 선진국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역대 정부가 과학기술 개발교육에 힘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과학 선진국이 되려면 과학기술 개발과 연구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화돼야 하는데, 각 학교에서는 과학실, 각 기업체는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직장에서도 발명과학코너 설치를 하고 언제든지 착안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그것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정부에서는 과학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지원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서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여 세계의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모여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과학의 달을 맞이해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은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학 꿈나무를 가꾸는 과학교육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독자기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대피계획을 세우자

권석현 연등119안전센터 소방사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4천여건으로 1천6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의 인명피해 주요 원인은 연기흡입 및 화상, 뛰어내림이었으며 5년 간 아파트 화재 사망자 행동분석에 따르면 대피 중 사망자의 수가 꽤나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쁜만아니라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아파트 화재,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자.

최근 소방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아파트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새로운 행동요령을 알아보자. 바로 "불나면 '살피서' 대피"이다.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등 상황에 맞게 살피서 대피하도록 하는 행동요령인 것이다.

아파트 공간 내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 우리가족 안전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피난시

설과 대피경로를 조사한다.

잠깐 주의를 기울이면 보이는 소화기, 완강기, 유도등, 유도표지, 대피공간 등 여러 피난기구·설비의 위치를 확인하고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활용한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여러 화재상황을 가정해 행동요령을 연습한다.

가족 간 역할을 정해 119에 직접 가신고해보기, 호흡기를 쫓은 수건으로 막은 채 낮은 자세로 대피해보기, 사전에 알아보았던 다양한 대피시설을 활용해보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피난계단으로 내려갈 때의 시간 체크해보기, 비상구 방향을 숙지하기 등 충분히 일상에 녹여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각 관할 아파트를 돌며 지속적으로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을 지도·점검을 하는 중이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며, 함께 하는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인다면 위급한 상황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나면 살피서 대피합시다! 평소에 연습한대로!

4월 5일은 제79회 식목일이고 4월 21일은 제57회 과학의 날이다. 따라서 4월은 나무를 심는 식목의 달이면서 과학 꿈나무인 과학자를 발굴하고 기르자는 과학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사장 이문수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가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서울지사본부 (우)0538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8번길 16-12 102호
 전북지사본부 (우)559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연천2길 69-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D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